

문학상은 명예의 '월계수'가 아니라 문화 '상품'

문학상을 최적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스페인 출판계

정창 | 번역가

3월 들어 스페인 서점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소설 문학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연이틀 사이에 발표된 제5회 알파과라 소설상(Premio alfaguara de novela, 알파과라 출판사, 1998년 제정)은 미국 뉴저지에서 활동하며 《여왕의 비행(El vuelo de la Reina)》을 쓴 토마스 엘로이 마르티네스에게, 제6회 신춘 소설상(Premio primavera de novela, 에스파사 출판사, 1997년 제정)은 자국의 후안 호세 미야에게 돌아갔다. 그의 수상작은 《프라하의 두 여자(Dos mujeres en Praga)》다.

문학상과 출판시장은 공생의 관계

필자가 '서점계에서 주목하는' 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스페인어권 출판 시장의 속성과 올해 출판 시장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다. 사실 스페인어권의 출판 장르는 타 언어권(특히 영미권이나 불어권)과 비교할 때 무엇보다 예술과 문학 혹은 인문 사회 분야, 나아가 언어와 스포츠(축구)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래 국내 출판계에서 붓물 터지듯 번역 출간되는 대중적인 경영서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썩어졌다면 우리 출판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헤게모니를 쥔 강대국, 다시 말해 경제 부국에 속하는 나라의 텍스트가 아니라면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닌 바에야 어느 편집자가 선뜻 번역 출판할 것이며 어느 독자가 그것을 읽어보고자 할 것인가 말이다.

문학상은 어느 언어권이나 출판 시장과 마치 바늘과 실처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데, 스페인어권은 그것이 곧 출판 시장을 움직이는 최적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문학상을 살펴보자. 먼저 스페인의 노벨상 수상자는 히메네스와 얼마 전에 타계한 카미노 호세 셀라며, 라틴아메리카는 칠레의 미스트랄과 네루다, 과테말라의 아스투리아스, 콜롬비아의 마르케스, 멕시코의 파스 등을 배출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면 부러워할 일이지만 약 30여 나라 4억 인구권인 그곳에선 그다지 만족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소설 장르에 카를로스 푸엔테스나 바르가스 요사, 시 장르에 니카노르 프라 등 '영 순위'에 근접한 작가들이 적지 않다는 데서 위안되고 있다.

문학상이 출판시장에 활력 불어넣어

한편 스페인어권에서 제정된 국제상 차원(엄밀히 말하면 동어권)의 문학상은 수십개에 이르는데,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세르반테스 문학상을 필두로 장르에 따라 세분화(소설, 시, 희곡, 수필 등)돼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세르반테스 상과 아스투리아스 상, 라틴아메리카는 베네수엘라의 로물로 가예고스 상(상금 6만 달러)과 멕시코의 후안 볼포 상(10만 달러)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주로



스페인어권에서 문학상은 가장 효과적인 출판 마케팅 수단이다. 사진은 '카사 데 아메리카'에서 2002년 '알파과라 소설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는 장면.

대형 출판사가 제정한 문학상은 '간이 도서상'(세익스마랄 출판사)과 '나달 문학상'(데스티노 출판사) 등 전통적인 상들과 최근 들어 적극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막대한 상금을 내건 소설상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출판사는 플라네타 그룹인데, 그들은 스페인의 선두이자 세계 7위 출판 그룹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전반기(1~3월)와 후반기(9~11월)에 소속 출판사 상의 수상작을 발표하며 독자들의 구미를 충족시키고 있다.

무릇 상이란 수상을 전후해서 뒷말이 무성한 법이다. 앞서 언급한 '알파과라 소설상'이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에게 주어진 것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 봉

착한 현지 출판 시장을 감안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또한 '신춘 소설상'이 발표 직전까지 페루의 브리세 에체니케로 굳혀졌다가 결국은 후안 호세 미야로 결정됐는데, 이 결과를 두고도 벌써 두개의 상을 라틴아메리카의 작가들에게 안겨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도 흘러나온다. 어쩌면 꽤나 설득력 있는 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어두운 측면보다 문학상의 본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스페인어권에서 문학상 수상자들이 문학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견인차였을 뿐만 아니라 출판 시장을 이끄는 든든한 원동력이 돼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학상의 의미는 순수한 명예의 상징인 '월계수'가 아니라 '상품'인 측면이 강하다. 출판사나 서점의 입장에서 문학상은 이윤을 추구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며 창작 행위 역시 '먹고 살아야 하는' 방도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작가들이 왜 상금이 많은 문학상으로 몰리는가 하는 자조적 한탄은 사치스런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언급한 문학상 수상자들의 부상은 각각 약 2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억2천만원을 상회하는 액수다. ■